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과 적폐청산



김철홍 교수 (장신대 교수, 신약성서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과 유니온신학교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에서 S.T.M in Ecumenics을,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봉된 영화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한 달 만에 누적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고 최종 590만 명이 관람한, 흥행에 크게 성공한 뮤지컬 영화다. 영화가 개봉된 뒤 심지어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85년)의 원작 소설 번역본도 15만부가 팔렸나갔다고 한다. 2013년 1월 12일 경향신문 기사(박은하 기자)에 따르면 이 영화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작품에 등장하는 '실패한 혁명'과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이 현재 한국의 사회상과 맞물리며 공감을 자아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같은 해 1월 10일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최갑수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는 영화가 묘사하는 1832년 6월 파리 반란을 언급하면서 "'레 미제라블'은 혁명을 했는데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완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다. ... 우리나라는 4·19 혁명과 1980년 서울의 봄, 5·18광주민중화운동, 87년 6월항쟁 등을 통해 일정한 수준에서 민주화가 됐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돼 왔다"고 말한다. 즉, 관객들이 이 영화에 쉽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오늘 날 한국의 현실에 "빛대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영화평이 말하는 '지점'은 다른 아닌 '정치적' 지점이란 것은 자명하다.

인터넷 상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관람평을 찾아 읽어보면 일반 관객들 역시 압도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자반응비평(reader's response criticism)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고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원저자인 빅토르 위고가 말하려고 한 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장봉기' '혁명' 등의 정치적 주제 주위만 맴돌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문학적 빈곤과 지나친 정치적 경도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영화의 내용이 지극히 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영화 읽기가 인터넷 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충격적이다. 레 미제라블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짧은 글에서 그 모든 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빅토르 위고가 던지는 '법치주의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질문을 되새기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현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장 발장(Jean Valjean)은 평범한 노동자로서, 어느 날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4차례의 탈옥 시도 때문에 총 19년의 징역을 산 뒤 가석방된 그는 미리엘 신부의 도움으로 살던 중성당의 은그릇을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에 체포된다. 하지만 미리엘 신부는 경찰에게 장 발장이 갖고 있는 은그릇은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어 그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 후 장 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의 사업가로 변신한다.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변신한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장(市長)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긴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보낸 19년의 인생은 빵 한 조각을 훔친 그의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엄격한 처벌이 전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미리엘 신부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을 받는 경험이었다. 바울의 다메섹 회심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용서의 경험을 통해 장 발장은 마들렌이란 전혀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 기간에 자본가로 살아가면서도 마들렌은 재물을 향한 동물적 욕망에 사로잡혀 무자비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원시적 자본축적을 하는 자본가의 모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까지 팔아야만 했던 판틴이라는 이름의 여성 노동자를 도우려고 하고,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자신의 딸로 키우는, '은총 안에서' 중생(重生)하여 살아가는 기독교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 발장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을 상징한다면, 자베르는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자베르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반드시 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찰이다. 그의 존재 그 자체가 법치주의 기초다. 그는 경찰로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장 발장을 다시 체포하려고 한다. 그에게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장발장을 용서해 준 미리엘 신부

출처: 톰 후퍼의 영화 <레미제라블> (2012)

장 발장은 단지 죄수번호 24601일 뿐이다. 영화에서 자베르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 '자베르의 독백'(Javert's Soliloquy)의 아래와 같은 노랫말은 이 점을 극적으로 잘 보여준다.

I am the law and the law is not mocked
나는 곧 법이고, 법을 우습게보면 안 되지

I'll spit his pity right back in his face
장 발장의 자비를 그의 얼굴에 다시 침 뱉어 돌려줄 거야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we share!
이 땅에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It is either Valjean or Javert!
장 발장이냐 아니면 자베르냐, 둘 중 하나만 있을 뿐!

그런데 20년간 장 발장을 추적하던 자베르는 아이러니 하게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 모범경찰 자베르는 왜 자살하게 되었을까? 장 발


장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내지 못한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그가 자살한 것은 아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장 발장이 보여준 선한 삶의 모습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장 발장이 자신을 죽이지 않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종교'인 율법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의 원칙, 즉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원칙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노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세느강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Is he from heaven or from hell?
장발장 그는 하늘에서 온 걸까 아니면 지옥에서 온 걸까?

And does he know
그는 알고 있을까

That granting me my life today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내 생명을 주었지만

This man has killed me even so



내가 알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어

평생 장발장을 쫓던 경찰관 자베르는 자신을 살려준 장발장을 통해 갈등하다 자살을 한다.

출처: 톰 후퍼의 영화 <레미제라블> (2012)

이 사람은 또한 나를 죽였어

... I'll escape now from that world

나는 저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거야

From the world of Jean Valjean

장 발장의 세상으로부터

There is no where I can turn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없어

There is no way to go on!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자베르의 죽음은 결코 법이 인간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죄용서의 은총만이 죄인을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독교는 법 혹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나 율법은 '강제'이기 때문이다. 강제와 강요는 인간

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인간은 변화시키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자발성이다. 인간의 자발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은 뒤부터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인간은 능동적으로 긴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는 자발적,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고, 율법의 강제와 강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노예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을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질문이 된다: '과연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물론 그의 대답은 '복음'이다. 이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 즉 '율법의 행위가 인간을 의롭게 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죄용서의 은총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장 발장과 자베르, 이 두 사람

의 삶을 다른 여정으로 인도했을까? 장 발장 유형의 인간과 자베르 유형의 인간 사이에 있는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다. 장 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인식한다. 그의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고 죄의 그늘 안에 있다. 그는 범 죄를 저질렀으나 인간과 하나님에게 이중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빗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베르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법과 정의의 편에서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베르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이므로 자신을 '정의의 일꾼'으로 볼 뿐, 절대로 자신을 장 발장과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자베르는 자기의(self-righteousness)로 뽐뽐 뭉친 사람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장 발장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베르가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즉 장 발장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법에 의해 처벌받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믿는 자베르의 이런 잘못된 신념은 그를 결국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다메섹 회심 이전의 자신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묘사한다. 그도 역시 자베르처럼 자기의(自己義)로 뽐뽐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 선 바울은 자베르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로 보

여주심으로(갈 1:16) 자신이 의인(義人)이 아니라 죄인(罪人)임을 깨닫게 되었다(고전 15:9-10). 바울이 자기의(自己義)를 버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自己義)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장 발장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다. 기독교인은 바로 이런 장 발장 같은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결함투성이의 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과 남을 모두 죄인으로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남을 정죄하고(to condemn) 자신을 심판자(judge)로 착각하는 정신병에서 자유롭게 된다. 만약 자베르가 자기의(自己義)의 화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自己義)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독배(毒杯)다.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은 한마디로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지난 정권 하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에 의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비록 율법과 법에 의한 처벌이 인간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속사회에서 법

치주의가 무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과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늦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맞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대속적 형벌 (penal substitution)을 요구하지도 않고, 천진난만하게 무조건적 용서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인은 오히려 세속사회에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질 때에야 사면과 용서가 더 가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현재의 적폐청산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는 현정부와 그 지지 세력들이 자기의(自己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죄인들의 목록을 만들어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때, 적폐청산위원회가 먼저 국회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 뒤에 법률적 근거를 갖고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청와대 임종석 실장 명의의 공문(公文) 한 장에 근거해서 기구를 설치한 것은 국가행정체계 문란행위다. 적폐청산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법' 등 관련법 등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는 이런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차상의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암시하는가? 현정권이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이해하는 자베르와 같은 인간형들로 뿔뿔 뭉쳐져 있고, '우리는 정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니 잔소리 말고 우리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며, '어차피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해도 우리는 정의롭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 우스운 것은 검찰과 법원의 굴종적인 태도다. 적폐청산위원회가 법적으로 조사권도 없는데도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찰로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와 고발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이다. 왜 사법부는 외부발주에 의한 범죄 조사와 고발을 받아들이고 있나?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 때 외부발주로 촬영하는 것에서 무슨 대단한 영감 (inspiration)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불법적 적폐청산은 검찰과 법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집단에 불과한 위원회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적폐청산은 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이 아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할 때 적폐청산은 처음부터 정의롭지 않은 것이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제5공화국 시절에 경찰서에 걸려 있던 '정의사회구현'의 간판을 기억한다. 그 때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메스꺼움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역질이 다시 느껴지는 것은 왜인가? 자기의(自己義)에 매몰되어 심판자가 되기로 자처한 한국판 자베르들의 칼춤을 보면서 이들의 종말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자베르들은 과연 자기의(自己義)의 독배에 취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인가?

영화에서 자베르도 장 발장도 다 죽는다. 장 발장은 딸처럼 키운 코제트가 사랑하는 연인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죽는다. 자베르의 죽음은 무가치한 자살이었다면, 장 발장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 자신이 죽기 전날 장 발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God on high

하늘에 계신 하나님

hear my prayer In my need

제가 필요할 때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

You have always been there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 Bring him home

그(마리우스)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He's like the son I might have known

내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그와 같을 겁니다.

... And I am old

저는 늙었고

And will be gone

곧 죽을 것입니다.

... If I die, let me die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를 죽게 하시고

Let him live

그를 살려주세요

Bring him home/Bring him home/Bring him home

그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장 발장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분노를 쏟아붓는 자베르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선택한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이다.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장 발장의 삶이 오늘따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